

음악·토크로 올해도 힐링하세요



김정은 강원래 김용걸 조재혁 안숙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브런치 콘서트' 올 라인업 확정

28일 첫 무대 김정은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가수 카이, 클론 강원래, 국악 안숙선 등 출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오원트리오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1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에서 열리는 브런치 콘서트가 올해도 10회의 콘서트를 진행한다. 브런치 콘서트는 관객에게 일상 속 예술을 통한 휴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와 함께 생생한 라이브 연주를 통해 예술가들과 친숙하게 교감할 수 있는 ACC 대표 시리즈 공연이다. 지난해에는 테너 류정필과 라틴 앙상블, 방송인 손미나, 티악 그룹 '공명'과 '땀띠', 피아니스트 박중훈, 조이오브스트링스, 유니버설발레단 문훈숙 단장 등이 무대에 올라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첫 번째 무대는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김정은 박사(문화심리학자)의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다. 유럽 정상의 오페라, 바스티유 극장 파리 오페라단 단원으로 활동하다 최근 전남대로 부임한

방대진(바리톤)이 출연해 '겨울 나그네'를 들려준다. 이어 3월의 브런치 콘서트에는 뮤지컬 가수 '카이'가 등장한다. 클래식과 뮤지컬을 넘나들며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카이는 '3월의 어느 멋진 날'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진행한다. 4월에는 장애인의 날(4월22일)을 기념해 연예인 강원래가 삶과 음악에 대해 이야기한다. 5월에는 국악칼럼니스트 윤중강이 관객들을 만난다. 윤중강은 1930년대에 유행한 신민요 '만오'와 '오빠는 풍각쟁이'의 풍자와 해학을 통해 그 시절의 문화를 다시 끄집어낸다. 이어 6월에는 첼리스트 양성원과 오원트리오가 2016년 개봉한 영화 '시간의 종말'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토크와 음악무대를 선보인다. 1830년 조선에 방문한 선교사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무대 위에서 재해석한다. 김용걸 한예종 교수는 '스텝 바이 스텝 발레는

나의 인생'(7월25일) 콘서트를 통해 모던발레에 대해 설명하며, 피아니스트 박종화, 하림의 '동요, 클래식 이 되다'(8월29일)에서는 박종화가 연주하는 정통 소나타와 하림의 동요 클라보레이션 무대가 마련된다. 또,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이자 가야금산조 및 병창 예능 보유자 안숙선이 '소리동행 60년 우리 가락 열두'(9월27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며 피아니스트 조재혁은 10월31일 '가을의 로맨틱 피아노' 콘서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마지막 무대는 뮤지컬 스타들이 함께하는 '뮤지컬 걸작 콘서트'(11월 28일)가 장식한다. '2018 ACC 브런치 콘서트' 관람료는 일반석 2만 5000원, 사이드석 1만 원이다. 상세정보 및 예매는 ACC홈페이지(www.acc.go.kr), 콜센터(1899-5566)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김남주 시인 24주기 추모제 내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

"진짜 큰 도적들은 밀실에서 돈을 세고 / 있는 자는 태연하게 감옥에서 나오는 / 추억은 매우 나뒀다 죽은 자와 / 담배를 나누어 피우는 장례식장에는 / 알맞은 침묵, 알맞은 기억이 있다 / 죽은 자의 이름을 자꾸 떠올린다 / 연기와 재만 남는다"(이재연 시인의 '천사들의 침묵' 중에서) 김남주(1945~1994·사진) 시인의 24주기를 맞아 그의 문학과 정신을 기리는 추

모제가 열린다. 김남주기념사업회(회장 김경운)와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박관서)는 10일 오전 10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추모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인인 김미송 광주전남작가회의 부회장 사회로 추모사, 추모시, 헌화 분향 등 행사가 펼쳐진다. 먼저 이강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 김상윤 윤상원기념사업회

이사장, 김희수 광주전남작가회의 고문이자 추모사를 낭독하고 이어 이재연 시인이 '천사들의 침묵'이라는 추모시를 낭송한다. 또한 '내 벗소리 민족예술단'의 추모의 노래가 펼쳐지며 김남주 시인의 육성 낭송시를 듣는 순서도 예정돼 있다. 이어 김경운 기념사업회장의 기념사업 보고, 유가족 인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된다. 문의 010-8602-2974.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서양화가 박정일 초대전 '마음 속에 그리다'

내달 4일까지
전남대병원 갤러리



▶'꿈-먼 곳을 응시하다'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상용)이 서양화가 박정일 작가 초대전을 병원 1동 CNUH갤러리에서 다음달 4일까지 개최한다. '마음 속에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추상적인 배경에 새를 소재로 한 꿈(Dream) 시리즈 20여점이 선보인다. '꿈(Dream)-먼 곳을 응시하다'는 다른 나뭇가지에 앉은 두 마리의 새가 멀어져 마주보고 있는 장면으로, 서로 다가갈 수 없는 현실에서 그저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담아냈다. 이밖에도 한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때, 박제된 모습처럼 서 있는

세 마리의 새와 고양이 등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박정일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새는 자아의 아바타로 실재의 한 표상이자 이를 극복하려는 자의 정신과 초월의 메타포"고 설명했다. 박 작가는 조선대 미술과를 졸업했으며 지금까지 7차례 개인전을 개최했다. 광주시 미술대전, 전라남도 미술대전, 무등 미술대전 등에서 수상했으며 한국미술협회,그림새학회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푸른연극마을 '다산...' 문화예술회관연합회상 수상

극단 푸른연극마을(대표 오성완)의 연극 '다산 다정도 하도할사(사진)'가 7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4회 예술의전당 예술대상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상'을 수상했다. 예술의전당 예술대상은 예술의전당이 주관하고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조직위원회·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공동 주최한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상'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전국의 문화회관에서 공연 또는 전시를 진행한 지역 기반 예술단체의 공연, 전시작품을 추천받아 우수 작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작인 '다산 다정도 하도할사'는 지난해 극단 푸른연극마을이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상주단체로 선정돼 기획, 제작한 작품이다. 18년간의 유배 속에서도 방대한 규모의 저서를 남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애를 연극과 음악,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작품으로 풀어냈다. 속도감 있는 장면 전개,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악구성, 뮤지컬적 요소, 무용안무를 결합해 작품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췄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극단 푸른연극마을은 지난 1993년 11월 창단돼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150여회 정기공연과 300여회 기획공연으로 지역민의 문화향유와 연극 발전에 기여해왔다. 문의 062-670-7934.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문화관광재단 '청춘마이크' 사업 참가자 모집

전남문화관광재단(사무처장 오영상)은 '청춘마이크' 사업 참가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청춘마이크' 사업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청년예술가들이 거리·전통시장 등에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선보이는 행사다. 총 20개 공연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광주·전남에서 활동 가능한 청년 문화예술인(만 19세~만 34세), 1~5인 이내 소규모 팀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공연 분야는

음악, 연극, 무용, 다원예술, 예술일반 등이다. 1차 심사(지원서 및 영상) 후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팀은 연간 5회의 공연 기회와 공연비를 지원받는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12일 오후 3시 광주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1층 다목적홀에서 가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ja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1-280-5826.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예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2월호

1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문화소외' 주름 펴는 찾아가는 문화

- 동네 미술관, 마을 작은 도서관이 커온 여중생 화가, 할머니 시인
- 고흥, 진도 등에 작은 영화관 개관
- 오지, 섬마을로 찾아가는 예술단

기획-새시공작 이야기
정월대보름 좋은 글귀로 가운 쓰는 풍습
우리도 가운 만들까?

고등어이삭을 물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노중훈의 꿈의 여행과 깊고 아름다운 검무론 숲 독일 블랙 포레스트

동네책방에 빠지다-책방별곡
푸른 꿈이 자라는 사유의 정원 '부산 인디고서원'

여행이 만난 이 사람
화순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영화배우 신성일 KIA타이거즈 안방 주역으로 성장한 포수 한승택

예향 초대석

'광주의 밥 달린' 작곡가 박문옥

"통기타 40년, 광주가 나의 음악"

- 기획-광주돌리 다시보기② 풀리와 광주읍성
- 광주읍성 이해할 때 1차 풀리의 의미 살아난다
- 공립미술관의 길을 본다④
- 문항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④ 신석정 시의 심지를 만나다 석정문학관
- 전시 리뷰 마리 로랑생-색채의 황홀
- 정문숙의 유쾌한 예술가들의 재향과 선택의 사진가 브래송 Vs. 토스카니
- 문화 화제 2018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인터뷰 "이제 시작의 문을 열었을 뿐이죠"
- 당만 다다해 꿈꾸는 섬들의 고향 신안 新安
- 천 가지 즐거움 만끽 -오붓한 느낌의 행복 -갈진 맛, 흑신도 품이

배국남의 대중문화 X퍼알롱
열악한 제작 환경, 드라마 강국의 불편한 민낯

해당수산부 공동 기획 겨울바다 여행

삼척시 갈남마을 -안산 대부도 고향부리 마을